

# 불교 인식론, 그 원론과 응용

「유식학입문」 「불교임상심리학」



불교의 인식론이자 심리학인 「唯識學」에 대한 입문 내지 개설서인 「유식학입문」과 그 유식학을 서양심리학과 「연결을 모색」한 「불교임상심리학」이 불광출판부에서 나란히 출간되었다. 무식함을 무릅쓰고 표현하자면, 각각 「유식학원론」과 「응용유식학」이 될 터이다.

유식학은 「마음의 체성과 마음의 작용을 낱말이 분석하여 인간의 정신생활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학설」이다. 그리하여 유식학은 지금까지 축적된 불교학 가운데서 「가장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학설」이라고 인정되어 왔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의하여 창조되어진다(一切唯心造)는 유식학의 근본사상은 대승적인 유심사상인 것이며 그리고 대승적인 연기(緣起)사상을 펼치는 사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심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식학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는바, 이 필요에 의

해 「유식학입문」이 저술되었다고 지은이는 밝힌다. 저자 오형근씨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유식사상연구」 「유식과 심식사상연구」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 「인도 불교의 선사상」 등의 저작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유식학의 略史」 「心識說의 개요」 「前五識」과 제6의식 「제7 말나식」 「제8 아라야식과 三相」 「8식의 명칭과 정신작용」 「三種自性和 三無性」 「유식학의 수행설」 등 8장과 별편 「사후제사와 천도」 「우란부의 영혼천도」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 임상심리학」의 저자 오카노 모리야에 의하면, 유식은 「심층심리학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있게 이론화한 대승불교의 한 도달점」이며 따라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나 융의 분석심리학보다도 더 깊은 마음의 공까지 보고 있다」고 한다. 「인간 특유의 惡」을 극복하기 위해 학문 여러 분야를 해매던 저자는 「마침내 불교유식과 만나 그 문제를 풀었다」고 밝힌다. 유식학의 기본문헌인 「유식 30송」을 그 나름대로 현대적 언어로 읽어본 이 책은 인간의 근본 번뇌, 무명의 절망적인 수준까지 응시하며, 인간에게는 미래를 향한 잠재적 가능성이 숨어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한 시도처럼 여겨진다. 「동과 서의 심리학」 「자아의 부정과 마음의 구조」 「생명정보의 세계」 「심층자의식」 「의식과 5감의 세계」 「유식의 의미」 「세계인식의 삼량식」 「유식의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자는 眞眞님.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일본 경도 불교대학원에 재학 중.

불광출판부 / A5신 / 각 288, 182면 / 각 6000, 3500원

# 국문학연구 지평 넓은 노작 들

「한국 고전시가작품론」(1·2), 「한국민요집」(Ⅶ)



「한국고전시가작품론」은 고전시가연구의 초석을 다졌던 故 정병욱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고대 한역가요로부터 조선말기 잡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부침하는 주요 시가작품 80여편에 대한 80명의 후학의 논문이 묶였다.

이번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가 밝힌 이 책의 체제와 내용은 「우선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작품들의 개별작품론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해당 작품의 연구사적 토대와 집필자의 자유로운 견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는 것. 그런데 고대가요, 향가, 고려속요, 경기체가, 악장, 가사, 연시조, 잡가 등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졌으나, 평시조 및 사설시조에서는 개별적 각편의 작품론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편자가 제재별로 묶어 제목을 제시함으로써 집필자의 자유로운 논의를 유도하였다고 「간행사」에서

밝힌다.

故 정병욱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아직도 살아있다. 일례로 그가 고시가 운율학 분야에서 개척한 이른바 「음보론」은 요즘 중학생이면 모두 다 외우고 다닌다. 또한 그는 판소리를 연구하기 위해 민속적 자료 수집으로부터 음악이론의 탐구에 이르기까지 행동반경이 넓고도 다양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밟아갔던 길 음마다 연꽃이 피어 이렇듯 방대한 작품론이 묶인 것은 이 책이 단지 한 인물의 영전 앞에 마쳐지는 제사상이라기보다 한국고전시가 연구에 새로운 경지를 여는 연구서로 평가될 만하다.

「한국민요집」(Ⅶ)은 우리나라 민속학의 거목인 임동권 중앙대 명예교수가 엮은 충남 예산지방 민요집. 예산지방의 민요가 천연편 수록되어 그 지방의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임은 물론 한국민요 전체의 통찰을 위한 매개적 자료집으로서의 의의도 크다고 평가된다.

이 책에 수록된 민요들은 주로 1951년에서 54년 사이에 저자가 현지에서 수집한 것과 당시의 예산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협력에 의해 모아진 것들 위주. 그리고 노래의 명칭은 「謠」字를 붙여 통일했으며, 분류는 그의 저서 「한국민요집」의 분류법에 의거했다고 범례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요」 「신앙요」 「婦요」 「情요」 「만가」 「타령」 「노랫가락」 「설화요」 「歌詞性요」 「단가」 「동식물요」 「童女요」 「諷笑요」 「語戲요」 「數요」 「놀이요」가 그것들이다. 集文堂 / A5신 / 각 412, 478면 / 각 12000원 集文堂 / A5신 / 236면 / 10000원

## 식물도 생각한다 식물의 신비생활

식물의 놀라운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 흥미로운 실험 과정과 그 뒷이야기들, 방대한 참고문헌.

식물도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한다—식물의 사고력, 감각과 정서, 초감각적 지각(ESP)의 경이로운 세계. 환경, 농업, 의료, 식품 등 생명과 관계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 대안도 제시한다.

피터 토킨스 외 / 황정민 외 옮김 / 504면 / 7,500원

##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식—정신세계사의 신간

\*서점에 있습니다.

### 네 발로 걷는 스승

뛰어난 통찰력과 지성을 지닌 멋진 개 한 마리에게 완전히 매료된 한 사람과, 그에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애쓴 개 한 마리. 이 「네 발로 걷는 스승」이 인간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알렌 분 / 이필원 옮김 / 200면 / 3,800원

## 韓國역대名漢詩평설 옛 詩情을 더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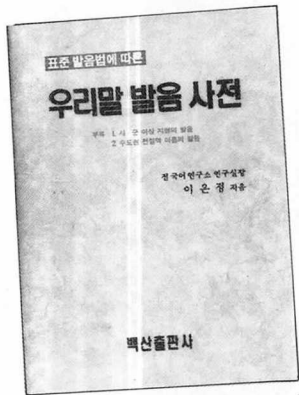
이제 우리 한시는 「漢文」이 아니라 「시」로 읽혀져야 한다. 시대별, 주제별로 엄선하여 새롭게 번역하고 자세한 평설(評說)을 붙인 우리 한시 300여 수.

신라시대 최치원의 작품에서부터 조선시대의 황 현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시문학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 수필을 읽듯 쉽게 우리 한시의 진경(眞境)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유려한 평설, 자세한 주(註)와 지은이 소개를 덧붙였다.

손종섭 편저 / 680면 / 8,500원

# 말의 질서 부여하는 표준발음사전

백산출판사 刊 「우리말 발음 사전」



말은 의사전달의 수단이다. 그 언어공동체에서 약정된 음성적 형식에 의하여 표현하려는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말의 근본기능이다. 따라서 발음은 정확한 의미전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우리말 발음 사전」은 일상용어뿐 아니라, 전문용어까지 약 15만개 어휘의 발음을 정리하고 있다.

근래 우리말은 지역간, 계층간의 차이가 심하거나, 같은 지역·계층에서도 사람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고, 심지어 국어학자나 전문적인 방송인(아나운서, 앵커맨 등)의 발음에 있어서도 '표준적인 것'과 '비표준적인 것'의 구별이 모호한 실정. 특히 긴소리와 짧은소리의 구별, 된소리화, 음의 첨가현상 등에 그 혼란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나 대중매체 방송인의 발

음이 화자의 발음습관이나 임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비표준적인 것으로 실현된다면 국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도 표준발음의 보급 및 현상의 시정, 순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저자는 (전 국어연구소 연구실장 이은정) 지난 1988년 1월19일 문교부가 제정 고시한 '표준 발음법'을 토대로 우리말의 정확한 발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이 사전을 편찬하면서 몇가지 우리말 발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표제어 기준 설정문제, 사이시옷 표기와 발음 문제, 표준어의 '수- / 숫-' 문제, '니'의 2중모음 발음 문제, 제2음절 이하에서의 긴소리 발음 문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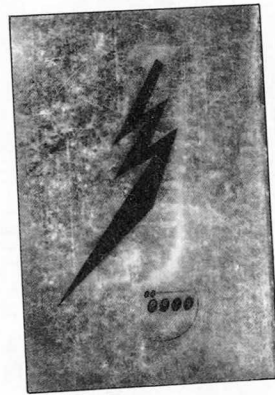
이 사전의 체계를 보면 표제어는 일반국어 사전에서 다루어지는 어휘를 바탕으로 삼고, 거기에는 초중고교 교과서에 쓰인 말과, 근간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사용되는 말을 보충하고 있다. 표제어 배열순서는 문교부고시 '한글 맞춤법 4항 붙임'에 규정된 자모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또 긴소리는 全長音과 半長音으로 구별하여 표시하였는데 이른바 連接語的 單位의 발음에 있어서 중간에 경계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음절에서만 전장음을 인정하고 2음절 이하에서는 반장음으로 다루었다.

총 1388면에 달하는 이 사전은 문교부고시 '표준 발음법'과 함께 부록으로 '시·군 이상 지명의 발음'과 '수도권전철역 이름의 발음'도 수록하고 있다.

백산 / B5 / 1388면 / 60000원

# 예비 디자이너들의 열정 담긴 실험작

「홍익 그래픽 디자이너스 가이드 1993」



겉표지가 마치 銀으로 만든 거울인 양 얼굴을 비추는 책. 나르시스라면 오랫동안 황홀하게 관찰할 것이고 자기 얼굴에 혐오감을 가진 이라면 잠시 경악하다가 집어던질 그런 표지와 디자인과 편집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이 편집디자인 과정(지도교수 안상수)의 과제를 통하여 제작한 책. 책 이름은 한편으로는 도발적이고 한편으로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히그(Higg)」. '홍익 그래픽 디자이너스 가이드'의 영자 이니셜의 순차적 배열인 것이다.

「히그」의 '서문'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이책을만들며...'이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 디자인의 앞날은 홍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들의 안내서가 필요"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책"이라고 적어놓았다. 「히그」의 목차는 'in-

dex'이다. 디자이너 필수학, 오! 홍대, 자료수집, 홍익동문, 진로가이드, 알아야 하는 것들, 디자인소스, 포트폴리오, 매킨토시 단축키, 부록, 동문 주소록 등으로 구성돼 있음을 밝힌다.

본문의 글자체는 주로 고딕이며 특히 사람 이름의 경우는 대부분 '뽕뽕하게' 서 있는 등 예비디자이너들의 정열과 '무모함'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드러난다.

'뉴키즈'들의 거침없는 감수성과 감각의 발달함을 발산하는 '학회회'의 프로그램이기도 할 것이지만 본문 중의 '디자이너 필독도서' '디자인 관계논문'을 비롯한 일련의 코너는 디자인에 관심을 둔 이들을 위한 정보지침서이자 훌륭한 안내서 구실도 할 수 있을 만큼 자못 꼼꼼하면서도 방대하다. 필독도서 코너는 사계의 권위자들의 추천을 받아 작성되었고, 그래서 추천자 명단도 공개되어 있다(이 명단에는 '뽕뽕한 활자'를 쓰지 않았다). '디자인론' '편집 타이포그래피' '광고디자인' '영상디자인' 'CIP'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그래픽' '포장디자인'에 관련된 국내의 저서목록도 정리되었다. 시각디자인 논문 코너에는 더욱 세분화된 분야별로 몇천편의 관계논문이 "인덱스 되어 있다"

이 책의 '디자인 어록'에는 매킨토시의 "정직한 실수에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스타일리스트의 실연은 같은 완전성에 희망이란 없다"는 말이 인용돼 있다. 이 책에서 혹 실수가 찾아진다면 열정이 만들어낸 정직한 것이므로 희망을 찾아내는 일 또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홍대시각디자인학과 / A5변형 / 266면 / 비매품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는 재미있고 유익한 진선의 책들”



진선출판사 720-5990 · 1